

##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이영옥  
(경희대)

### 1. 서론

한국어와 영어는 어휘를 비롯하여 기본어순, 문법적 장치 뿐 아니라 언어 사용의 맥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하는 화용상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무리 유사한 언어 사이라 해도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거니와 한국어와 영어처럼 음운, 어휘, 통사구조, 화용상의 원칙 등 모든 측면에서 상이점이 두드러진 언어 사이에서의 완벽한 번역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어구문을 제대로 된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영어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이 힘들다고 해서 영어의 어휘들을 그대로 따온다거나 영어식의 문장구조를 사용하는 일은 번역가로서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기본적인 체계를 무너뜨리고 고유의 특성을 파괴하는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번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인용문의 번역을 명사중심성격의 영어와 동사중심성격의 한국어의 특징과 연관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명사중심적 영어와 동사중심적 한국어

한국어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어의 특징은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나타나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다는 점이다. 영어에는 명령문, 감탄문의 특수유형의 문장과 관용표현 등을 제외하고 시제를 갖춘 동사가 출현하는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표면상에 나타나야 하고 명사형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 외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와 전치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명사 또는 명사구가 한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어는 기본어순이 주어(S)-동사(V)-목적어(O)의 순서이기 때문에 명사형인 목적어가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게 되고 문장의 제일 끝에 나타나는 명사형을 추가로 수식하는 문장형태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즉, 선행사인 명사 또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절과 동격의 명사절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가산명사(Countable noun)와 불가산명사(Uncountable noun)로 구분된 명사들은 다시 관사나 소유형 지정사(possessive determiners), 지시사(demonstratives) 등과 같은 문법 장치들과 각종 명사, 형용사, 분사형태의 동사 등을 통한 수식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1)에서와 같이 Nida가 제시한 여섯 가지 영어 평서문의 기본 문형들(kernels) 중 네 가지가 명사 또는 명사구로 끝나는 데 비하여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문장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문장종결어미가 붙을 수 있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끝난다.

- (1) a. John ran quickly.
- b. John hit Bill.
- c. John gave Bill a ball.
- d. John is in the house.
- e. John is sick.
- f. John is a boy.

- (2) a. 존은 빨리 달렸다.
- b. 존은 빌을 때렸다.
- c. 존은 빌에게 공을 주었다.
- d. 존은 집에 있다.
- e. 존은 아프다.
- f. 존은 사내아이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문장종결어미로써 한 문장을 종결짓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명사 또는 명사구로 끝맺을 수 있는 영어에서와 같이 문장의 끝에 나오는 명사 또는 명사구를 다시 추가로 관계 절이나 동사의 분사형태로 수식하거나 동격 명사구나 명사절의 형태로 덧붙여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다음 각 절에서 한국어와 영어간 동사성과 명사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 2.1. 한영간 관계절 구문상의 차이

한국어와 영어가 대비된 다음의 예들을 보자.

- (3) a. He looked like a lawyer—which he was.  
    그는 변호사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그는 변호사였다.
- b. We travelled as far as Paris, at which place we parted.  
    우리는 파리까지 여행을 하였고 그곳에서 서로 헤어졌다.
- c. I ordered a French soup the name of which I can't pronounce.  
    나는 프랑스식 스프를 주문했는데 그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다.
- d. The school has twelve rooms, three of which are not used.  
    그 학교에는 교실이 열 두 개 있는데 그중 세 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위 (3)의 예들은 선행 명사(구)를 수식하는 형태의 영어 관계절에 대비한 한국어의 예들로 영어에서 문장 끝에 추가된 관계절은 앞의 선행 명사(구)에만 종속되어 수식하는 구조인 데 반하여 한국어의 경우는 선행 명사(구)와 후속 관계절 간의 관계를 ‘-고, -는데’ 등과 같은 대등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달리 부여할 수밖에 없다. 즉, 영어에서는 주절이 하나인 문장이라도

한국어에서는 시제를 갖춘 주절동사들이 연이어 나열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 문장 단위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문장 단위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는 우리가 이 논문에서 논할 인용문의 번역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2.2. 영어전치사와 한국어동사의 대응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표현될 상황이나 사건이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동반한 명사(구)의 형태로 표현되어 두 언어 간에 표면구조상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이 그 대표적인 대응예들이다.

- (4) a. They advised her against marrying quickly.  
그들은 그녀에게 급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 b. A man was beaten into a state of unconsciousness.  
한 남자가 얻어맞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
- c. I can't persuade him out of those ideas.  
나는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버리라고 그를 설득할 수 없다.
- d. They talked me into joining in.  
그들이 나에게 설득하여 같이 참여하게 하였다.
- e. It's too early for supper.  
저녁을 먹기에는 너무 이르다.
- f. The children watched in wide-eyed amazement.  
그 아이들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 보았다.
- g. Everything unfortunately amounts to very little, despite the secretary's politeness.  
비서가 예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h. He held it out of her reach and went on reading.  
그는 그것을 그녀가 잡지 못하게 들고서 계속 읽어 나갔다.
- i. With a shrug, Moray gave up.  
모레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만 두었다.
- j. The house is hidden from sight behind trees.  
그 집은 나무 뒤에 안보이게 숨겨 있었다.
- k. At the sight of my old professor, I froze.  
노교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 붙었다.

- l. I'm sorry for my silence.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미안합니다.
- m. The train came to a complete stop.  
기차가 완전히 멈추어 섰다.
- n. He felt a surge of murderous jealousy.  
그는 살기어린 질투심이 끓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 o. Jackson looked over at his son with genuine surprise.  
잭슨은 너무 놀라서 아들을 건너다 보았다.
- p. Everything turned gold at a touch.  
손을 대는 대로 모은 것이 금으로 변하였다.
- q. Matthew O'Reilly went out for his usual afternoon walk.  
매튜 오릴리는 늘상 하던 대로 오후 산책을 하러 나갔다.

(4)의 영어문장에서는 각각 시제를 갖춘 동사는 하나뿐인 것에 비하여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치사를 대신하여 모두 새로운 동사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against는 ‘...하지 말라,’ out of는 ‘...을 버리라,’ into는 ‘...에 빠지다’ 또는 ‘...하게 하다’ 등과 같이 고유의 동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for나 in과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 ‘먹다’(4e)나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4f)와 같은 식으로 적절한 동사가 추가되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와 같이 전치사구, 즉 전치사와 명사(구)의 형태로 표현된 영어구문의 상당수에서 이를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영어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이외의 기능을 하는 명사(구) 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로 나타나는 예들을 보도록 하겠다.

### 2.3. 동사의미를 가진 명사(구)

영어에서 명사(구)가 출현하는 경우는 이상에서 살펴 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외에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다양하다. 이 때 많은 경우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대응시키려면 새로운 동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의 예들은 모두 영어에서는 명사(구)로 표현된 것을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표현한 경우들이다.

(가) 주어

- (5) a. It seemed a familiar scene. Then the realization hit her.  
그곳은 어쩐지 낯이 익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퍼뜩 생각이 났다.
- b. Illness is forcing him to slow down.  
몸이 아파서 그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나) 목적어

- (6) a. I'd like a refill, please.  
한번 더 채워 주세요.
- b. He gave a quick furtive glance round the room.  
그는 재빨리 방안을 슬쩍 둘러 보았다.
- c. C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hotel?  
호텔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d. She gave his tie a straightening touch.  
그 여자는 남자의 넥타이를 매만져 바로 잡아 주었다.
- e. His request indicates a serious absence of class.  
그가 그런 식으로 칭하다니 격이 떨어지는
- f. The officer lost sight of the stolen car.  
경찰은 도둑맞은 차를 놓쳐 버렸다.
- g. You have to make unexpected visits.  
미리 약속하지 말고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 h. I mumbled a weak "Thank you" to the beaming youth.  
나는 그 미소짓는 청년에게 조그맣게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다.

(다) 보어

- (7) a. Her answer was a whispered, "Yes."  
그 여자는 속삭이는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였다.

(라) 동격

- (8) a. I took the train to work every day, a ride which took about 40 minutes.  
나는 매일 그 기차로 출근하는데 기차를 약 40분간 타고 갔다/약 40분 걸렸다.
- b. He tried to wink, a bad try, and I broke down and laughed.  
그는 윙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c. Without taking her eyes from Willy Jack's face, Claire shook her gesture of disbelief.

윌리 잭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클레어는 머리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몸짓이었다.

(마) there 구문

(9) a. I'm afraid there will be a wait for a table, madam.

부인/손님, 테이블이 내려면 좀 기다리셔야겠는데요.

b. There was no escaping it.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c. There was a stir around her desk.

그 여자 책상 주변이 웅성거렸다.

d. He waited until there was silence.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e. There was no escape from the cameras.

그 카메라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 관용표현

(10) a. Shame on you.

부끄럽지도 않으나.

b. No offence, I hope, Mr. Weller.

웬리씨,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c. What a nice surprise!

놀랐지만 기분 좋은 걸!

d. No more interruptions! Now, tell me . . .

다른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 . .

이상은 영어의 명사중심적 성격과 한국어의 동사중심적인 성격의 대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이한 성격의 두 언어를 대응시키는 번역에는 불가피하게 Newmark(1988: 85)가 여러 번역전략 중의 하나로 제시한 전환(shifts or transpositions)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 there 구문, 관용표현 등으로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서 명사(구)가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언어인 데 비하여 한국어는 영어에서 명사형으로 표현된 부분을 동사를 나열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점을 반영하도록 하자면 영어에서 명사(구)로 표현한 부분들

을 한국어에서는 동사(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만일 영어의 문장구조에 맞추기 위하여 영어의 명사(구)를 한국어에서도 명사(구)로 표현하려고 하면 한국어의 체계와 맞지 않는 매우 어색한 문장들이 되거나 (10)과 같이 동사가 결여되어 있는 관용표현의 경우에는 아예 문장 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0)과 동일한 유형으로서 동사가 결여된 영어의 ‘Good morning’을 같은 구조의 한국어로 바꾸어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단어를 대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타동사구문 문장주어상의 차이

이영옥(2001)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지만 명사중심성격의 영어와 동사중심성격의 한국어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이가 바로 소위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문장의 분포상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타동사구문의 주어로서 생물이 아닌 사물이나 추상적 사실 등을 지칭하는 명사(구)가 자유로이 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그와 같은 물주구문은 매우 드물게 그것도 영어를 축어적으로 번역한 결과로서만 나타날 뿐이다. 대표적인 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sup>1)</sup>

- (11) a. Her accent argues her to be a foreigner.
- b. John's going to the store bothered me.
- c. A 10-minute walk brings you to Kappabashi.
- d. But the mere mention of the children brought tears to my eyes.
- e. The difficult driving conditions caused several accidents.
- f. Lack of funds for the campaign compelled his withdrawal.

한국어에서는 대응되는 구조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무생물주어구문이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현상을 영어의 명사중심적 성격과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성격의 특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한편 이영옥(200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어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 . . 하게 하다’ 라는 사역의 의미를 갖는 타동사가 한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과 연관지

---

1) 더 상세한 예들과 논의는 이영옥(2001)을 참조할 것.



을 수 있을 것이다.

### 3. 인용문 구성에 나타난 한영 구문상의 차이

영어의 명사중심적 성격과 한국어의 동사중심적 성격의 차이는 두 언어간 텍스트의 구성방법의 차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최근 담화분석이론은 문장의 경계를 넘어 문장과 문장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단락의 구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니와(Gillian Brown and George Yule(1983)) 인용문의 구성방법에서도 한국어와 영어 간 동사성-명사성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1.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전하는 방식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할 수 있는 직접인용의 방식과 전하는 사람의 해석과 편집이 추가되는 간접인용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인용문은 공통적으로 사람인 주어와 인용의 주체가 되어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도입하는 부분과 인용되어 옮겨진 부분으로 구분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도입하는 부분을 '인용도입부(reporting clause)'라 칭하고, 인용되어 옮겨진 부분을 '인용부(reported clause)'라 칭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인용문과 인용부에 대한 화자의 해석 및 편집이 가미되어 형태가 바뀌어 표현되는 간접인용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인용문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이 구분되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직접인용문에서는 인용부에 인용부호가 첨가되는데 이는 인용부가 독자적인 발화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표시한다. 간접인용문에서는 인용부호가 사라지면서 인용부가 인용도입부에 사용된 동사의 보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제와 어순, 인칭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직접인용문은 인용도입부와는 유기적인 문법적 관계를 갖지 않는 반면에 간접인용문은 인용도입부에서 사용되는 동사

의 보어로서 유기적인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각각의 대응쌍들에서 직접인용문 (a)에 대응되는 간접인용문 (b)가 영어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12) a. David said to me after the meeting, "In my opinion, the arguments in favor of radical changes in the curriculum are not convincing."  
b. David said to me after the meeting that in his opinion the arguments in favor of radical changes in the curriculum were not convincing.
- (13) a. He asked, "Where are you going?"  
b. He asked where I was going.

간접인용문은 인용도입부의 화자와 관련하여 인칭을 변화시키고(my → his; you → I), 인용도입부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현재는 과거로 과거는 과거완료로 바꾸어 주고 의문문의 경우는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를 평서문의 순서로 바꾸는 등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직접인용문의 인용도입부에 사용되는 동사의 유형도 간접인용문의 경우와 다르다. 즉, 직접인용문에서는 대표적인 동사 say, ask, answer 등과 같이 발화행위를 지칭하는 동사 외에 다음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다양한 동사들이 인용도입부에 나타난다.<sup>2)</sup>

- (14) a. "Shakespeare!" hooted Carrie.  
b. "Delighted," rumbled Dodger.  
c. "What are you doing, Henry?" she squawked.  
d. "Poison?" squeaked Annabelle in surprise.  
e. "It's really sad if you actually believe you're a star," gurgles Paul.  
f. "Jump!" shouted the oldest woman.

---

2) Levin, Song, & Atkins(1997)는 코퍼스 언어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방대한 영 어자료를 바탕으로 언어 직관만 가지고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제시한 예문은 영어에서 직접인용문에 사용되는 음향 동사(verbs of sound)의 특징을 논하면서 Levin, Song, & Atkins(1997: 38)이 제시한 예문들을 따 온 것이다.

- g. "Oh, poor little thing," she wailed.
- h. "Get out of there," I screamed.

이와 같이 음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사 외에 interrupt, smile, grin 등과 같이 발화현장에서의 발화자의 발화 태도를 묘사하는 동사도 간접인용문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직접인용문이라는 문장구조는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발화장면을 재현하는 형식이므로 인용도입부의 동사를 통하여 발화자의 실제 음성적 특징과 발화태도 등을 묘사하게 되면 생동감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실제 발화를 재현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형식인 간접인용문의 인용도입부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주로 인용부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가미된 동사들이다.

[표 1] 영어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의 인용도입부에 사용되는 동사

직접인용문의 동사	간접인용문의 동사
call, chorus, crackle, cry, groan, gurgle, hoot, mumble, murmur, mutter, rattle, rumble, scream, shout, shriek, squawk, squeak, squeal, storm, thunder, wail, whisper, whistle, yell	tell
	believe, expect, feel, imagine, propose, suppose, think
frown, grin, interrupt, smile	accept, agree, announce, argue, assume, charge, confess, decide, deny, discover, expect, hint, hope, imply, insist, know, mention, notice, predict, promise, realize, recommend, remark, remember, report, reveal, swear, threat, warn

[표 1]에서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의 인용도입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동사들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say, ask, answer, explain, add, allege, complain, continue, reply, suggest, admit, claim과 같이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사들 외에 직접인용문에 주로 출현하는 동사들과 간접인용문에 주로 출현하는 동사들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직접인용문의 동사들은 음성의 크기, 강도, 음색 등 음성의 특징을 묘사하는 동사 외에 frown, smile, grin 등 발화시의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직접인용문의 동사와 달리 간접인용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들

은 발화의 내용과 관련된 보다 추상적인 의미의 동사들이다.

영어의 직접인용문은 이와 같이 인용도입부의 동사가 주로 직접 인용의 대상이 되는 발화의 실제 상황을 재현한다는 목적 이외에 발화시 발화자의 음성이나 태도 등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여야 하므로 인용도입부와 인용문의 연결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다.

특히 소설에서 인물의 발화를 인용하는 경우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용부를 먼저 제시하고 나서 인용도입부를 추가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15) a. "I see," said John.  
b. "Perhaps," he suggested, "it was just an impulse."  
c. "Anyway," she continued, "it's quite out of the question."  
d. "I wonder," said John, "whether I can borrow your bicycle."

직접인용문의 인용도입부는 인용문의 앞, 뒤, 중간 위치 중 어디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14)에서와 같이 발화자의 음성이나 태도 등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나 대명사가 아닌 주어를 사용한 경우는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15)의 예들에서와 같이 인용도입부의 동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는 인용부의 중간에 삽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간접인용문의 경우는 인용도입부가 거의 언제나 인용부에 앞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용부가 문법적으로 인용도입부에서 사용한 동사의 보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인용문은 인용도입부와 의 문법적 밀착관계가 간접인용문의 경우보다 약하므로 다음 (16)의 예에서와 같은 소설의 텍스트에서는 대화체의 인용문에 대하여 문맥을 통하여 발화자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경우 인용도입부 자체를 생략하기도 한다.

- (16) "Is he old?" William asked, hesitating.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saw him?"  
"Many years."

직접인용문의 이와 같은 전개방식은 통사적으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이어지는 대화 상호간 의미의 연결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문법의 관점에서는 일정한 규칙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인용도입부를 갖춘 인용문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 3.2. 한국어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

인용문이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으로 구분되는 점에서는 한국어도 영어와 동일하지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문장구성상 가장 끝에 출현하면서 인용도입부의 동사가 독특한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영어와 달리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이 확연하고 실제 발화상황의 청자와 화자가 갖는 사회적 신분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가 수반되는 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출현하는 한국어는 직접인용문이라 할지라도 실제 발화된 문장 형태를 그대로 옮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인물들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발화현장을 생생하게 재현시킬 필요가 있는 소설이나 가벼운 수필의 경우 외에 직접인용문을 설명문, 안내문, 학술 논문, 신문기사, 전기, 역사기록 등 문어체의 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어는 실제 언어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신분, 연령, 친소 관계 등에 따라 복잡한 존대법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문장종결어미가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할 때 발화의 의미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정보를 굳이 가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발화시 사용된 문장종결어미를 굳이 정확하게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된 종결어미까지 그대로 옮기는 것은 발화의 내용을 실제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발화내용 자체에 대한 초점은 오히려 흐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어체와 문어체간의 이러한 확연한 차이가 없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소설이나 구어체의 발화상황에서 극적인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용문의 구성은 간접인용문의 형태를 취한다.

### 3.3. 동시중심 한국어의 인용문

한국어의 인용문에서도 영어와 같이 인용도입부에 ‘말하다’를 비롯하여 ‘소리치다, 밝히다, 주장하다, 설명하다, 묻다, 질문하다, 대답하다, 답하다, 확인하다’ 등과 같이 발화행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다음 예에서와 같이 대동사인 ‘그러다’나 ‘하다’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17) ㄱ. 영이가 그러는데 오늘 집에 손님이 오신대.
- ㄴ. 선생님께서 내일까지 숙제를 내라고 하셨어/그러셨어.
- ㄷ. 그 분이 날 보고 착하다고 하셨어/그러셨어.

동사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점 때문에 한국어에서 인용문은 어떤 단순한 통사규칙으로만 처리되기 어렵다. 즉, 인용도입부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인용부가 삽입되어야 하므로 인용부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경우 문장의 생성 및 해석 과정에서 주어와 동사의 연결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17ㄱ)과 같이 인용도입부에서 인용부를 제외하고 주어와 발화행위 동사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인용부를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특히 구어체에서 인용도입부의 발화행위 동사에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여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7ㄱ)의 ‘오신대’와 같이 ‘그러다’나 ‘하다’와 같은 발화동사를 인용부의 종결어미에 융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어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용문을 포함한 문장은 또한 그 자체가 다른 문장과 종속 또는 대등관계를 가지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에서는 분사구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문장들의 경우 인용부의 문장종결어미와 인용도입부의 연결어미를 융합한 형태의 특수한 연결어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 직접인용문 (18), (19)와 그에 대응되는 간접인용문 (18’), (19’)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직접인용문의 인용부와 간접인용문의 인용부에서 사용되는 종결어미의 형태로써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18) ㄱ. 아이는 “선생님, 그럼 나중에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ㄴ.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중에 찾아 가마.”
- ㄷ.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나중에 찾아 갈게요.”
- (18’) ㄱ. 아이는 선생님께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하였다.
- ㄴ. 김선생님께서서는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 ㄷ. 아들은 어머니에게 나중에 찾아 가겠다고 하였다.
- (19) ㄱ. 현주는 “나 정말 화 났어.”라고 말했다.
- ㄴ. 박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 ㄷ. 순이가 말했다. “저 정말 화 났어요.”
- (19') ㄱ. 현주는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 ㄴ. 박씨는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 ㄷ. 순이는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청자와 화자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가 구사되는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의 형태에 청자와 화자간의 계급, 연령, 남녀, 친소 등의 관계가 반영된다. 따라서 직접인용을 한다는 것은 실제 사용된 종결어미가 갖는 발화상황에서의 청자와 화자간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과 같다. 또한 직접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부가 인용도입부의 구성소로서 한 문장으로 표출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는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 사이에 이와 유사한 차이가 없는 영어의 경우와는 판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의 번역에서 이와 같은 한국어의 기본 특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표 2] 한국어 문장형식에 따른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의 종결어미

	직접인용문	간접인용문
평서문	다/습니다/어(요)/아(요)/지(요)/네(요)/군(요)/거든(요)	다
명령문	라/십시오/어(요)/아(요)/오/소(서)/려므나/지(요)/게	라
청유문	자(꾸나)/십시오/어(요)/아(요)/지(요)	자
의문문	(느)냐/니/습니까/어(요)/아(요)/냐(요)/가(요)/(을)까(요)/지(요)	냐

한국어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호칭, 지시사에서의 차이 외에 위의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직접인용문에서는 실제 발화상황에서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등 문장 형식에 따라 사용되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그대로 표현되어야 하는 반면에 간접인용문에서는 각각 단일한 형태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직접인용문은 화자의 발화내용 이외에 청자와 관계와 같은 발화

상황에 관련된 정보까지를 담고 있고 동일 문장내에서 간결하게 표현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어에서 글의 성격상 특히 인용문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문기사체에 직접인용문이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는 직접인용문이 훨씬 많이 사용되는 영어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간의 상호관계를 드러내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소설이나 가벼운 수필 등에서는 직접인용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4. 인용문의 영한번역

인용문의 번역에서 영어와 다른 이와 같은 한국어의 인용문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용문은 영한 번역에서 축어적 번역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성서의 번역예와 소설과 신문기사의 번역예를 비교하여 인용문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0) a. The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these charges true?" (*Acts* 7:1)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나

b. "The law has taken all my rights away," Diane Pretty said after the ruling, speaking in London with the aid of a keyboard and a computer voice synthesizer. (*The Korea Herald* May 4, 2002)

"법은 나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판결이 나온 뒤 다이앤 프리티는 런던에서 키보드와 컴퓨터 음성 신서사이저에 의존해 말했다.

c. They say, "I'm going to make a killing." (Saul Bellow, *Seize the Day*)

그들은 <오늘은 한몫을 크게 잡아야지>라고 말한다.

(20a)는 공동번역본이 발간되기 전 통용된 번역본인 <新국제역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서 '가로되, 가라사대'와 같은 발화동사를 인용부에 선행시킴으로써 영어원문의 순서에 일치시키도록 하였지만 인용부의 종결어미의 처리가 인용도



입부의 동사와는 연결되지 않아 어색한 형태가 되었다. 순수 한국어기사와 소설에서 사용된 인용문의구성을 비교하면 번역문의 문제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 (21) ㄱ.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영길 신부님께 물었다. 신부님은 웃으시더니  
 “그냥 그것도 가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 . .” 라  
 며 웃으셨다. (공지영, 수도권 기행)
- ㄴ. 또 같이 내향한 조미는 “미녀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지  
 친다”며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서 개성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  
 못한 여자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특수분장을 하는 것 또한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한국관광신  
 문』 2002년 4월 29일)

(21 ㄱ)은 발화현장을 비교적 생생하게 옮긴 직접인용문으로 기자의 해석이 가미된 (21 ㄴ)과 다르다. 여기에서 한국어의 경우 같은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인용문도 발화행위를 비교적 실제와 동일하게 기술하는 (21 ㄱ)과 같은 ‘중계식 직접인용문’과 직접 인용을 하면서도 화자의 해석과 편집이 추가되는 (21 ㄴ)과 같은 ‘편집된 직접인용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계식 직접인용문의 경우는 인용부호를 첨가하고 독자적인 단락을 부여하는 형식을 통하여 인용부 자체가 독립된 문장으로서의 격을 지닌다. 이에 반하여 편집된 직접인용문에서는 인용부를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인용도입부 속에서 동사의 보어라는 한 구성요소로서의 위치만을 갖게 되므로 (20a)와 같이 “가로되”로 시작하여 문장종결어미가 첨가된 인용도입부의 동사로 끝맺지 않는 형식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문장으로서의 구성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 발화를 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종결어미를 원래 사용된 형태로 살려 주는 직접인용문과 달리 종결어미부분을 단순화시킨 ‘편집된 직접인용문’은 결국 인용부호를 중간에 첨가했다는 것 외에는 결국 간접인용문과 차이가 없다. 인용문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신문기사의 경우 영어에서는 직접 인용된 예가 거의 매기사 당 두 문장이상인 것에 비하여 한국어의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직접인용문을 사용한 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어 인용문의 번역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KCS I

- (22) “Whomsoever I can make use of,” replied the lion, “I may very well allow to walk by my side.” (*100 World’s Great Fables*)  
 “내게 쓸모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가 대답했다. “내 옆에서 걷도록 허락하는 게 당연하지.”

영어에서는 직접인용문의 인용부의 일부를 먼저 제시하고 문장이 아직 완결되기 전에 길게 수식을 받는 주어나 전치된 목적어 또는 부사절 뒤에 인용도입부를 삽입하는 예가 많다. 다음 예문들의 대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용도입부를 직접인용문 사이에 삽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용부의 전후에 다양하게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직접인용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간접의문문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 (23) a. “As a result,” said John, “I am very angry.”  
 b. John said that as a result he was very angry.  
 (24) a. “I am your friend,” said John/John said.  
 b. John said that he was my friend.

한편 한국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중간에 인용도입부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된다. 한국어에서는 인용도입부는 문장의 말미에 동사가 종결어미를 수반하여 출현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해서 문장의 중간에 삽입될 수 없다. (22)의 경우 한국어 번역은 (25)정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이 훨씬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것일 것이다.

- (25) 사자가 대답했다.  
 “내게 쓸모있는 자라면 내 누구라도 내 옆에서 걷도록 허락하겠노라.”

<新국제역 성경>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번역에는 영어의 경우 인용도입부인 ‘they said’를 중간에 삽입한 데 대하여 인용부의 중간에 인용도입부를 삽입시키지 않고 앞의 문장과 연결시킨 경우로서 ‘가로되’와 같은 ‘여짜오되’라는 표현이 문장의 종결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비교적 영어와 다른 한국어의 특성을 잘 살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6)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Mark 10: 35)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5. 결론

번역이 서로 다른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두 언어간 가장 인접한 대응점을 찾는 작업이라면 영어와 한국어는 어휘, 문법구조, 어순, 존대법 등과 관련하여 전세계 어떤 언어쌍보다 공통점이 적은 언어로서 두 언어간의 대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언어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이점이 많은 언어간에는 그만큼 더 번역의 필요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용문의 번역과 관련하여 명사형의 사용빈도가 높은 영어와 다양한 종결어미와 함께 동사형의 사용빈도가 높은 한국어의 특성을 살리면서 양 언어가 가장 가까이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어는 종결어미로써 발화현장의 청자-화자간의 상호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직접인용문에서 종결어미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영어의 경우와 달리 문장자체의 의미 이외의 정보를 추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대부분의 기사체나 논문의 경우 인용문은 직접인용문의 종결어미가 가지는 화용론적 정보는 논지의 전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배제된 간략한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간접인용문의 형식을 취한다. 이는 Grice가 대화의 화용론적 규칙성을 논하면서 협조의 원칙(Cooperative Principle)속에 열거한 관계성의 규칙(Maxim of Relation)이나 Sperber & Wilson (1986)의 적합성(relevance)의 규칙과 같은 화용론 및 텍스트론의 원리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어원문에서 직접인용문의 형태라 할지라도 소설이나 수필과 같이 생생한 발화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 한국어의 번역

본은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고 역으로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를 간략하게 바꾼 간접인용문을 영어로 표현하여야 할 때는 직접의문문의 형태로도 구사하는 것이 영어의 특성을 반영한 번역에 될 수 있다. 어떤 두 언어도 정확하게 상응되는 언어는 없다는 사실로부터 과학적으로 정확한 번역이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만 두 언어가 가진 구조적, 문법적, 화용론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독특한 특성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번역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번역가의 노력이 부단히 지속되는 한 이러한 불가능도 점차 가능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 참고문헌

- 이영옥.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2000.
- \_\_\_\_\_.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5, 2001.
- Baker, Mona.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2.
- Beaugrande, R. and W. U.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1981.
- Cole, P.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 (1975), 1975.
- Lee, Young-Ok. *Optimal English Expressions*. Seoul: Yunhaksa, 2001.
- \_\_\_\_\_. "Korean-English Differences in Negative Express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 9, 2001.
- Leech, G.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 Newmark, P.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1988.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85.

Sperber, D. &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K C I

[ Abstract ]

**Translation Problems between Korean and English Reflecting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Translation of Reported Speech**

Young-Ok Lee  
(Kyung He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provide correct translation between two languages like Korean and English as they are different in pragmatic aspects as well as in grammatical or syntactic aspects. English can be characterized as noun-centered in contrast with verb-centered Korean in that English has many functions in a sentence that should be fulfilled by nouns or noun phrases—nominals, while Korean sentences have a verb at the end with various forms of suffix added according to certain sociolinguistic standards as well as the sentence types.

While the reported speech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types, direct and indirect speeches, Korean has a different pattern of reported speech from that of English,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two languages' difference in noun- vs. verb-centeredness. As in Korean, the various forms of sentence ending deliver the social and cultu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lative status of the speaker and hearer, to report the exact form of the sentence spoken by someone else amounts to giving the sociolinguist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speaker and hearer's social status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tself. This is not the case in English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oken and written styles is minimum in contrast to Korean. In English, the direct speech form can be matched to the indirect speech form with minimum loss of information; the extralinguistic, i.e., sociolinguistic information is not so manifestly reflected in the sentence forms actually spoken. This study shows

such differences in delivering a reported speech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relates those differences to the two languages' basic differences in verb- vs. noun-centeredness.

KCS I